

미얀마, 최저임금제 도입 배경과 전망

■ 2015년 8월 28일, 미얀마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발표했고, 이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 최저임금은 시간 당 450껏(Kyat, 약 0.35달러)¹⁾, 일일 3,600껏²⁾(약 2.8달러)로 설정됨.
- 최저임금제는 2011년부터 의회에 입안된 후,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과정이 지체되어, 2015년 8월 29일자로 정부로부터 승인됨.
 - 최저임금법(Minimum Wage Law)이 2013년 3월 22일 승인, 2013년 7월 4일 발효되었지만,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 및 대립³⁾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 기준선에 대한 합의가 지체되었고, 이 후 2015년 6월 29일 국가최저임금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이 8월 28일 정부 승인을 받아 9월 1일자로 시행됨.
- 최저임금제는 직원이 15인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 및 가족 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적용되지만,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⁴⁾ 중인, 미숙련노동자에게는 최저 임금의 50%, 숙련노동자에게는 75% 지급이 가능함.
- 최저임금은 향후 최소 2년에 1회 이상 재조정될 예정이며, 기본급 외에 공휴일 유급휴가 및 시간 외 수당⁵⁾은 현행방식을 유지할 방침임.

■ 신정부 경제개혁정책 기조 중 하나인 최저임금제는 2012년부터 노동계의 권리신장을 위한 끊임 없는 요구와 총선(2015년 11월) 및 대선(2016년 2월)을 앞둔 미얀마 정치권의 포퓰리즘(Populism) 전략이 맞물려 얻게 된 성과로 볼 수 있음.

- 미얀마 군부가 민간 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한 2011년 이후, 최저임금제는 신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핵심 과제 중 하나였음.
- 개혁개방과 함께 미얀마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위 및 임금 인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옴.
-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원인은 금년 11월 총선과 내년 2월 대선을 앞 둔 미얀마 정치권의 민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음.

1) 2015년 7월 1일 기준, 1껏=0.9933원 (예: 450껏=430원, 3,600껏=3450원).

2) 일일 8시간 근무 기준임.

3) 당초 노동자들은 일일 최저임금 4,000껏(약 3.1달러)를 요구했으나, 고용주들(주로 봉제업체)은 2,500껏(약 1.9달러)를 요구하며 대립하였으나, 6월 29일 기준 3,600껏(약 2.8달러)로 최저임금수준을 합의함.

4)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수습기간은 미얀마 노동부의 관행에 따라 통상 3개월로 정함.

5) 일일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할 경우, 고용자는 노동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함.

KIEP 동향세미나

■ 정부는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섬유봉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다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기 직전 被해고자에 관한 “해고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 한 바 있음.

- 미얀마 노동복지부⁶⁾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주의 직원 해고에 대비하고자, 2015년 7월 3일에 “근무 기간에 따른 해고수당”을 발표함.
- 위 기관에 따르면, 섬유봉제업체들이 이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폐업 및 인력 감축을 시행하고 있음.
 - 2015년 9월 1일 최저임금제 시행 후, 한국과 중국의 현지 외국계 섬유봉제공장들은 약 1000명의 노동자를 해고 조치함.
 - 주요 외신들은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미얀마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향후 공장 폐쇄 및 인건 감축으로 인한 70,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전망함.

■ 동남아의 주요국 (표 1 참고)에 비해, 미얀마 최저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나, 전력 부족, 높은 지대 등⁷⁾과 같은 열악한 기업환경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기존 업체 및 향후 미얀마에 진출할 기업들에게 최저임금제가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월 24일 근무 기준, 미얀마의 최저임금은 86,400껏(약 67달러)이며, 라오스(약 109.7달러), 캄보디아(약 128달러), 베트남(약 95.7달러⁸⁾~ 143달러), 태국(약 200달러)등 주변국의 최저임금에 비해 낮은 편임.
- 인근 국가들에 비해, 미얀마의 열악한 인프라 시설과 높은 임차료와 같은 열악한 기업환경은 저임의 노동력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음.

표 1. 2015년 미얀마와 동남아 주변국의 최저임금 수준 비교

(단위: LCU, 달러, %)

| 국가 | 미얀마 | 라오스 | 캄보디아 | 베트남 | 필리핀 | 태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
| 기준 도시 | 양곤 | 비엔티엔 | 프놈펜 | 하노이 | 마닐라 | 방콕 | 자카르타 | 쿠알라룸푸르 |
| 최저임금 | 현지 통화 86,400 껏 | 90만 킵 | 512,000 리엘 | 310만 동 | 9,109 페소 | 7200 바트 | 220만 루피아 | 900 링깃 |
| 달러 기준 | 67 | 110 | 128 | 143 | 195 | 200 | 210 | 247 |

주: 월 24일 근무 기준, 환율은 2015년 9월 16일 기준임.

출처: 국제노동위원회(ILO)

6) Ministry of Labor,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7) 높은 물류비용, 낮은 노동생산성

8) 4 구역 기준: 4구역은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이고,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1 구역과 약 42.3달러 차이 남.

출처: ILO, The National Labor Committee, Reuters, Myanmar Times, The Voice News, The New Light of Myanmar
및 각종 언론자료 등

안선하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동향세미나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